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ty of FRBR Model in Korean Bibliographic Record

김 정 현(Jeong-Hye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1 저작의 유형구분 및 조사방법 |
|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2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
|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 3.3 FRBR 모형의 확대 적용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
| 1.3 선행연구 | 3.4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의 유용성 분석 |
| 2. FRBR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결 론 |
| 2.1 FRBR 모형의 구조 및 저작유형 | |
| 2.2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유형 | |
| 3.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과 FRBR
모형의 유용성 분석 | |

초 록

IFLA의 FRBR 모형은 서지레코드에 있어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 이 연구는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KDC 주류별로 100건씩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무작위 추출하여 FRBR 모형의 저작유형별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FRBR 모형을 적용할 경우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은 단순저작과 복잡저작을 합산한 1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지적 관계가 복잡할수록 유용성이 높게 나타나며, 한 저작에 번역, 개정, 개작, 복제, 해설 등과 같은 다양한 저작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저작은 일부 문학류의 고전작품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원작에 대한 해설이나 비평까지도 같은 범주의 저작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더욱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FLA's FRBR model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ataloging o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s. This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FRBR, a methodology for applying the FRBR work concept to a random sample of 1,000 bibliographic records taken from Korean National Bibliographic, and estimates of the number of works in Korean National Bibliographic and their associated characteristics, based on analysis of the sample. FRBR model can be applied to 16.9% of all works in Korean National Bibliographic. Results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benefits associated with applying FRBR to Korean National Bibliographic could be obtained by concentrated on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lex works.

키워드: FRBR 모형, 저작유형, 서지레코드, 기술목록

FRBR Model, Work Types, Bibliographic Record, Descriptive Cataloging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H00030).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2일

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원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저작이 창안되어 출판되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개정, 개작, 해설, 비평, 영인, 복제 등 파생되는 저작물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원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들의 서지적 관계를 유추하여 관련저작을 찾게 된다. 경우에 따라 원작보다 파생된 저작물을 더 필요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MARC 형식에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연관저록 필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국제목록원칙규범(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의 기능(IFLA 2003)에서도 원작과 서지적으로 관련된 모든 저작들을 모아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FLA의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기능요건) 모형은 목록에 있어 관계성을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저작 간의 집합형성이나 전거 제어에 유용하며, 지금까지 목록규칙에서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였던 네트워크 전자자료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자료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비해 목록규칙이나 MARC은 자료자체의 기술을 위한 기술을 하는 경향이 있고 복잡하며, 이용자기향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이 FRBR 모형이며, 이는 목록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이용자 요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재편한 것이다.

이미 FRBR 모형을 응용하여 운영되는 다수의 시스템들이 있으며, 전 세계 목록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국내외의 목록규칙, MARC 21과 KORMARC 형식의 구조, 도서관 정보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지레코드에 FRBR 모형을 적용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서지레코드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실물장서의 저작 유형을 조사하여 실제로 서지레코드에 FRBR 모형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서지레코드 체계와 비교하여 이 모형의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OCLC 등에서 서양자료를 대상으로 FRBR 모형에 의한 저작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있지만,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FRBR 모형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유용성이 있는 자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주제별로 유용성의 차이가 있는지, FRBR 모형 자체가 유용한 것인지 등을 표현형과 구현형의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 기반한 저작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목록의 구조화와 이용자기반 목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는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 레코드의 저작유형과 그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FRBR 모형의 구조와 서지적 관계에 기반한 저작유형을 분석한 후, 이를 한국어 서지 레코드의 저작유형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삼는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년'에서 KDC 주류마다 100건씩 모두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한다.

셋째, 추출된 서지레코드에 대해 그 레코드와 동일 '저작'이지만 표현형이나 구현형이 다른 서지레코드와 관련 저작 레코드를 조사하여 저작단위에서의 서지레코드 집합을 작성한다.

넷째, 저작유형의 출현빈도별, 주제별로 저작의 특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한다. 즉,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는 같은 범주의 저작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관련저작으로 이용자의 요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해설이나 비평서를 표현형으로 간주하여 앞서 진행했던 방법대로 조사 분석을 함으로써 이들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다.

여섯째,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유용성을 분석한다. 여기서 유용성(utility)이란 개념은 다양한 서지적 관계유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저작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유용성을 분석한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어 서지레코드를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년'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1,00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1.3 선행연구

FRBR 모형에 대한 해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응용 연구와 그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IFLA에서 발간하여 수시로 개정하여 오고 있는 'FRBR 서지'(IFLA Cataloguing Section 2007)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FRBR 모형 연구와 관련하여 유용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서지레코드를 분석하거나 한국어 서지레코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서지레코드를 대상으로 FRBR 모형의 이론적인 분석 및 실험적인 적용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재인(2004; 2005)은 FRBR 알고리즘 분석 및 KORMARC 데이터베이스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이듬해 다시 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 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성숙(2004; 2006)은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확장하여 수정된 M-FRBR 모형을 제시하여 서지적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에 다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FRBR 모형의 적용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소형(2006)은 영화정보를 대상으로 FRBR 모형에 기반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정진규(2007)는 방송영상 자료의 FRBR 기반 서지구조모형에 관한 연구

를 하였다. 김현희(2007)는 음악자료를 대상으로 FRBR 모형의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험적인 적용 및 서지검색시스템의 검색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서은경(2006)은 FRBR 모형에 기반한 서지정보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노지현(2007)은 한국의 도서관환경에서 FRBR 모형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유정(2007)은 FRBR 모형의 실행을 위한 MARC 레코드 생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어서 FRBR 모형의 저작유형을 바탕으로 서지레코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작의 특성과 FRBR 모형의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nnett 등(2003)은 OCLC의 WorldCat에서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특성을 분석한 결과, 레코드당 대략 78%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저작,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이 16%,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저작이 6%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주제별 저작유형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비평서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橋結(2005)은 게이오대학 도서관시스템인 KOSMOS II에서 1,000건의 일본어 서지레코드를 표본 추출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유형을 분석한 결과 레코드당 대략 81.6%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저작,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이 4.9%,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저작이 13.5%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비평서'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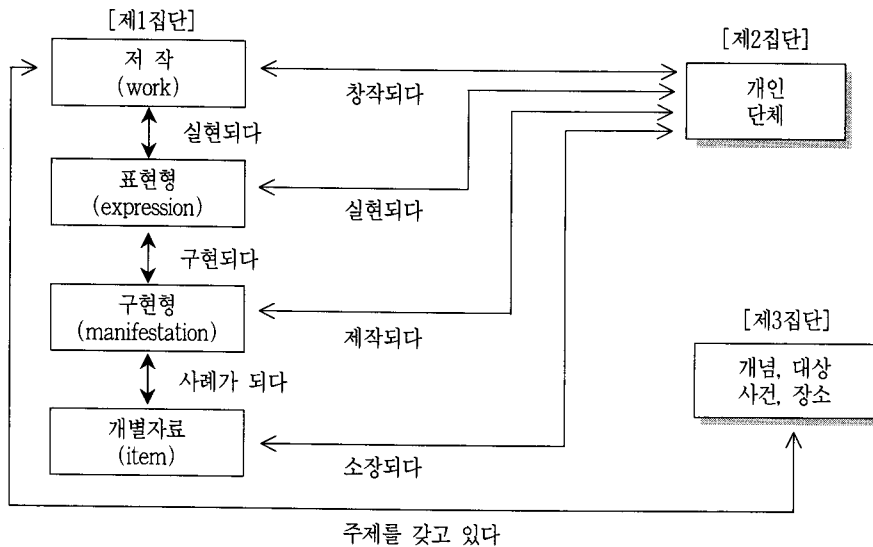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대한 FRBR 모형의 이론적 및 실험적인 연구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OCLC에서와 같이 실제로 서지레코드를 조사하여 FRBR 모형에 의한 저작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서지적 관계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어 도서의 저작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FRBR 모형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필자의 연구(김정현 2007)가 있을 뿐이다.

서지레코드에 이러한 FRBR 모형을 적용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 유형을 조사한 후, 실제로 FRBR 모형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유용성이 있는 자료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FRBR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FRBR 모형의 구조 및 저작유형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모형화 방법의 하나인 개체-관계 모형은 개체-관계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되는 대상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개체는 데이터베이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인식되는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FRBR 모형에서는 서지적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원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0개의 개체로 추출한 후 그것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3개 집단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FRBR 모형의 구조

〈그림 1〉에서 제1집단은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작의 개념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서지레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성과'로서 정보원을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4개의 개체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저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2집단은 지적 예술적 내용, 물리적 생산, 배포, 생산물의 관리, 보관에 책임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저자, 단체저자, 출판사, 도서관 등을 개인과 단체라는 두 개의 개체로 나타내고 있다. 즉, 개인 또는 단체는 제1집단의 4개 개체인 저작을 창조하고, 표현형을 실현하고, 구현형을 생산하며, 개별자료를 입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3집단은 지적 예술적 활동의 대상이 되는 주제(테마, 개념, 인물, 사건, 시대, 영역 등)를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4개 개체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3개 집단의 관계는 제2집단이 주체가 되어 제3집단의 대상으로 작용하면, 그 결과 제1집단의 성과가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개 집단 가운데 제1집단이 정보원 자체를 기술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RBR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집단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저작이라는 개체는 지적 예술적 창작물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술적인 연구와 독창적인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 등이며, 그것이 언어나 음성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표현형이라는 개체는 문자, 숫자, 악보 기보법, 무용 기보법, 음향, 화상, 실물, 동작, 또는 그것을 조합한 형식으로 표현의 차이를 동일

저작아래에서 구별하여 기술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번역문, 영화 시나리오, 라디오방송 시나리오 등과 같은 표현형식을 기술하며, 서체나 지면배치와 같은 물리적 형식은 그 하위의 구현형에서 기술한다. 원작의 형식변경(예: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조)이나, 번역과 같이 다른 언어로 변경된 것은 원작과 동일 저작으로 간주한다.

구현형은 추상적인 것(저작)이 표현형식을 수반하여(표현형)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기술하도록 설정된 개체이다. 즉, 구현형은 지적 내용(저작)과 그 표현형식(표현형)이 동일한 것이므로 물리적인 대상이 다른 것을 구별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포스터, 녹음물, 영화, 비디오, 점자, CD, DVD 등과 같은 물리적인 매체를 수반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구별하며, 이용자에게 어떤 매체로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개별자료는 구현형의 일례를 나타내며, 구현형과 개별자료는 물리적인 형식을 기술하기 위한 개체로서 기능을 한다. 즉, 어떤 매체로 유통되며, 어디가면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가를 이용자가 알도록 하는 관점이다.

저작과 표현형은 한 개의 저작에 복수의 표현형이 관계되어 있으며, 표현형과 구현형간에는 서로 복수의 개체를 관련시킬 수가 있다. 구현형과 개별자료간은 한 개의 구현형에 복수의 개별자료가 관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저작의 유형을 하나의 레코드에 집중시켜 이들 간에 서로 관계를 지워줌으로써 기존의 서지레코드보다 훨씬 이용자 지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저작유형을 실제로

분석하여 유별로 저작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서지레코드의 관계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2.2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유형

저작유형과 관련하여 FRBR 모형의 서지적 관계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집단인 개체간의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저작 상호간에, 표현형 상호간에, 구현형 상호간에 관계를 중심으로 서지적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63-81).

대부분의 저작은 저작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이지만 저작 상호간에 후속,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각색, 모방 등의 서지적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유형은 성격상 참조저작과 독립저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참조저작은 관련된 다른 저작과 긴밀하게 연결된 저작으로 다른 저작과 관련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작이며, 독립저작은 이용이나 이해를 위해 관련된 다른 저작을 참조할 필요가 없는 저작이다.

표현형 상호간에 관계는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와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로 나뉘어 진다.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는 한 표현형이 다른 표현형에서 나왔을 때 발생하며, 한 표현형이 다른 표현형을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동일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 유형에는 축약, 개정, 번역, 편곡(음악) 등이 있다.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간의 관계유형에는 저작과 저작수준에서와 유사한 서지적 관계유

형을 포함하고 있다.

구현형 상호간에 서지적 관계는 보통 동일한 표현형으로부터 나온 구현형과 관련이 되며, 서지적 관계유형은 복제와 대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각각의 상호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서지적 관계외에도 전체/부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유형들은 대부분의 서지적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며, 실제로 이들 내용은 대체로 KORMARC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과 FRBR 모형의 유용성 분석

3.1 저작의 유형구분 및 조사방법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분석을 위한 조사범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의상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에 수록된 자료로 한정하였다. 이 국가서지에는 1945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전량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등록자료,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목록정보 및 2005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종합목록등록자료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자료 등 총 200만 건이 수록되어 있다.

앞절에서 분석한 서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에서 KDC 주류마다 100건씩 모두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관계유형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상이한 저작의 표현형 상호간에 관계유형은 저작간 상호간의 관계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복을 방지하지 위해 저작간 상호간의 관계유형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한 서지레코드를 대상으로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 따라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즉, 하나의 저작군안에 앞절에서 제시된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모든 개체들을 군집화 하여 저작별로 구분하였다.

추출된 서지레코드를 중심으로 하여 그 레코드와 동일한 저작이지만 표현형이나 구현형이 다른 서지레코드를 표본 이외의 레코드에서 수집하였다. 이 때 표본추출은 한국어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저작의 유형 분석을 위해 표현형이나 구현형 등의 사례는 한국어 도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료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KERIS의 전국대학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이들 개체들을 군집화 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KORMARC 형식의 대응되는 필드들을 조사한 후 수작업으로 다시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속, 부록, 보유, 개정, 번역, 복제, 대체, 전체/부분 등의 서지적 관계는 KORMARC 형식에 기술할 수 있는 고유의 필드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요약, 변형, 모방, 축약, 편곡 등의 서지적 관계는 고유의 필드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주기(500 필

드)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지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1,000건의 단행본 레코드를 무작위 선정한 후, 이 1,000건의 레코드 하나하나에 대해 서지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레코드를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에서 조사하여 서지적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본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00건의 레코드에 대해 FRBR 모형에 의한 각각의 저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개정, 증보, 축약: 2회 이상 개정이나 증보, 축약되면 그 횟수만큼 표현형이 달라지므로 개정이나 증보, 축약된 횟수를 모두 개산함.
- 번역: 동일저작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번역된 언어만큼 표현형이 달라지므로 번

역된 언어 수만큼 계산함.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는 소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원서를 소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오히려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의 경우, 원서가 소장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저작을 한국어로 여러 사람이 다르게 번역하여 각각 출판한 경우에도 표현형이 달라지므로 모두 각각 계산함.

- 후속, 속편: 선행자료(원작)에 대한 후속자료(후속지, 후편, 속편 등)의 빈도수를 모두 계산함.
- 부록, 보유: 모체자료(원작)에 대한 딸림자료(별책부록, 보유, 기념호 등)의 빈도수를 계산함.

〈표 1〉 저작의 유형과 KORMARC 형식의 대응

저작유형	KORMARC 형식의 대응 필드	
저작	후속, 속편	247(변경전표제나 표제변동), 780(선행저록), 785(후속저록)
	부록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 772(모체레코드저록), 525(부록주기)
	보유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 772(모체레코드저록)
	요약	500(일반주기)
	개작	500(일반주기)
	변형	500(일반주기)
	모방	500(일반주기)
	비평, 평론, 해설	500(일반주기)
표현형	해제	500(일반주기)
	증보, 축약	250(판사항), 500(일반주기)
	개정	250(판사항)
	번역	246(제2지시기호 2: 원표제), 765(원저저록), 767(번역저록), 008(35-37: 언어구분)
구현형	편곡	500(일반주기)
	복제	776(기타형태저록), 533(복제주기), 534(원본주기)
	대체	775(이판저록), 530(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주기)
	전체/부분	245(권차 및 권차표시), 505(내용주기), 760(상위총서저록), 762(하위총서저록), 773(기본자료저록), 774(구성단위저록)

- 개작, 변형, 모방, 각색, 편곡, 요약: 원작으로부터 파생된 개작, 변형, 모방, 각색, 편곡, 요약 등의 빈도수를 계산함.
- 복제, 대체: 동일한 원작에 대한 복제 및 대체 등의 빈도수를 계산함.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원문D/B 구축의 결과로 인해 원작에 대한 복제율이 조사결과 대략 12.5%에 달하고 있어 타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전체/부분: 동일저작이 복수의 권수로 발행되더라도 1회로 계산함. 전집이나 합집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505 필드에 기술되거나 245 필드에서 권차표시를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이 주로 해당되며, 440 필드나 490 필드에 기술되는 총서명은 저작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제외하였음.
- 비평, 평론, 해설, 해제: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FRBR 모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관련저작으로 포함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떤 저작에 대해 내용을 소개한 해설이나 해제 뿐만 아니라, 저작의 내용을 분석 연구한

학위논문과 학술저널의 논문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만으로 미흡하여 KERIS를 비롯한 각 도서관의 OPAC를 통해 학위논문과 관련 도서의 비평서 및 학술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3.2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앞서 KDC 유별로 추출된 표본의 KORMARC 서지레코드를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저작의 유형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여기서 저작 개념의 수준에서 식별되고 있는 후속, 속편, 부록, 보유, 개작, 변형, 모방 등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BR 모형에서 별개의 저작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같은 범주의 저작개념으로 간주하여 모두 표현형의 범주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표 2>는 레코드당 저작유형의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1회 이상 저작유형을 나타내는 레코드는 전체 레코드 가운데 47.8%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도서는

<표 2> 저작유형의 출현빈도 현황

저작유형의 출현빈도	장서수(권)		백분율(%)	
0회	522		52.2	
1회	307	478	30.7	47.8
2회	109		10.9	
3회	56		5.6	
4회 이상	6		0.6	
합 계	1,000		100.0	

〈표 3〉 KDC 유별 FRBR 모형의 저작유형 현황

저작유형		KDC 주류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권)
저작	후속, 속편	3	2	2	5	1	3	2	1	4	3	26
	부록, 보유	5	0	1	3	0	3	2	3	2	0	19
	개작, 변형, 모방	0	0	0	0	0	0	0	0	3	0	3
표현형	개정, 증보, 축약	5	7	5	11	8	7	5	6	5	7	66
	번역	11	15	12	19	18	17	18	11	19	17	157
구현형	복제	11	12	9	15	12	13	14	13	16	13	128
	대체	2	0	0	0	0	1	0	2	2	0	7
	전체/부분	7	5	5	8	6	7	7	8	13	6	72
합계(권)		44	41	34	61	45	51	48	44	64	46	478

〈표 4〉 KDC 유별 FRBR 모형의 저작유형 출현빈도별 현황

저작유형		KDC 주류										합계(권)	평균(권)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단일저작(표현형1, 구현형1)		89	86	90	75	82	78	80	89	75	81	825	82.5
단순저작(표현형1, 구현형2)		2	2	1	4	3	3	3	2	4	3	27	2.7
복잡저작(표현형2, 구현형2)		9	11	9	20	14	18	16	9	21	15	142	14.2
단순저작+복잡저작		11	13	10	24	17	21	19	11	25	18	169	16.9
1저작당 표현형 수		1.14	1.19	1.12	1.32	1.23	1.27	1.24	1.15	1.33	1.24	12.23	1.22
1저작당 구현형 수		1.19	1.27	1.18	1.98	1.35	1.39	1.37	1.22	2.15	1.38	14.48	1.45

52.2%이다. 2회 이상 저작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는 17.1%이며, 주로 번역과 복제, 개정과 복제, 전체/부분과 복제, 개정과 번역 등의 유형에서 중복이 나타났다.

여기서 저작유형의 출현빈도가 0회인 경우가 52.2%로 522권이지만 이들 도서의 경우, 실제로는 표현형과 구현형이 각각 1개씩이다. 즉, FRBR 모형에서 어떤 저작에 대한 도서가 실제로 존재하면(구현되면) 기본적으로 표현형과 구현형도 각각 1개씩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저작유형의 출현빈도가 1회인 307권의 경우에도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도서는 표현형과 구현형이 1

개씩인 경우가 많다. 물론 출현빈도는 1회이지만 구현형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현형의 하나인 '대체'가 1회로 계산되었다면, 실제로는 표현형은 1개이지만 구현형이 일반도서와 대체물을 각각 소장하고 있을 때 2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복 출현부분을 계산하여 〈표 2〉와 〈표 3〉의 내용을 표현형과 구현형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저작유형의 빈도수가 0회인 522권, 표현형 168권, 구현형 135권은 표현형과 구현형이 각각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도서이며, 모두 825권이다. 여기서 표현형 168권중에는 번역도서 113권, 개정

서 35권, 기타 20권이며, 구현형 135권중에는 복제 83권, 대체 7권, 전체/부분 52권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표 3>의 내용을 저작유형의 출현빈도에 따라 단일저작(elemental work), 단순저작(simple work), 복잡저작(complex)으로 구분하면¹⁾ <표 4>와 같다.

여기서 단일저작은 1개의 표현형과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으며, 서지적 관련이 있는 저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저작이다. 아래의 예시 1은 표현형 1개와 구현형 1개씩을 갖고 있는 단일저작을 나타낸 것이다.

단순저작은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저작이다. 예를 들어 학위 논문을 인쇄본과 디스켓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하거나, 영화각본을 영화필름이나 DVD,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제작한 경우이다. 예시 2는 단행본 책자를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여 원문DB를 구축한 경우이며, 표현형은 1개이지만 구현형은 2개인 단순저작이다.

복잡저작은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저작이다. 복수의 표현형을 가지면 당연히 구현형도 복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출판사를 통해 발행되거나 여러 번 개정되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행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적으로 FRBR 모형이 갖는 유용성은 이러한 복잡저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시들은 복잡저작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들을 나타낸 것이다.

예시 3은 개정과 복제가 함께 나타나는 복잡저작이며, 표현형 3개와 구현형 4개를 갖고 있다. 예시 4는 개정, 번역, 복제가 함께 나타나는 복잡저작이며, 표현형 7개와 구현형 8개를 갖고 있다. 예시 5는 중복 번역과 복제가 함께 나타나는 복잡저작이며, 표현형 16개와 구현형 23개를 갖고 있다. 특히 고전명작의 경우 예시 5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도 번역되지만, 같은 언어로도 각자 다르게 번역하여 출판한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표현형이 많이 존재하기도 한다.

• 예시 1: 단일저작

[저작] 이연숙의 '미래공간과 디자인'

[표현형1] 원본 초판

[구현형1] 미래공간과 디자인 / 이연숙 저(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책자형]

• 예시 2: 단순저작

[저작] 김세익의 '圖書館과 社會'

[표현형1] 원본 초판

[구현형1] 圖書館과 社會 / 金世翊 著(韓國圖書館協會, 1971). [책자형]

[구현형2] 圖書館과 社會 / 金世翊 著(韓國圖書館協會, 1971). [원문DB]

1) 이는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Bennett 등이 제시한 구분 방법임.

• 예시 3: 복잡저작(개정판, 복제)

[저작] 박운성의 '現代經營學原論'

[표현형1] 초판

[구현형1] 現代經營學原論 / 朴運盛 著(博英社, 1984). [책자형]

[구현형2] 現代經營學原論 / 朴運盛 著(博英社, 1984). [원문DB]

[표현형2] 전정판

[구현형3] 現代經營學原論, 전정판 / 朴運盛 著(博英社, 1989). [책자형]

[표현형3] 제3전정판

[구현형4] 현대경영학원론, 제3전정판 / 박운성 저(박영사, 1996). [책자형]

• 예시 4: 복잡저작(개정판, 번역, 복제)

[저작] Joseph Machlis의 'The enjoyment of music'

[표현형1] 원본 초판 영어텍스트

[구현형1] The enjoyment of music / J. Machlis, K. Forney(Norton, 1955). [책자형]

...

[표현형6] 제6판 영어텍스트

[구현형6] The enjoyment of music, 6th ed. / J. Machlis, K. Forney(Norton, 1990). [책자형]

[표현형7] 제6판 한글번역본

[구현형7] 음악의 즐거움, 제6판 / J.매클리스, K.포니 저; 심금선 역(이화여대, 1997). [책자형]

[구현형8] 음악의 즐거움, 제6판 / J.매클리스, K.포니 저; 심금선 역(이화여대, 1997). [원문DB]

• 예시 5: 복잡저작(중복 번역, 복제)

[저작] Edward Hallett Carr의 'What is history'

[표현형1] 원본 영어 텍스트

[구현형1] What is history? / by Edward Hallett Carr(Vintage, 1961). [책자형]

[표현형2] 길현모의 한글번역본

[구현형2] 歷史란 무엇인가 / E.H.카아 저; 吉玄謨 역(탐구당, 1982). [책자형]

[구현형3] 歷史란 무엇인가 / E.H.카아 저; 吉玄謨 역(탐구당, 1982). [원문DB]

...

[표현형16] 박종국의 한글번역본

[구현형22] 역사란 무엇인가 / E.H. 카아 지음; 박종국 옮김(육문사, 1991). [책자형]

[구현형23] 역사란 무엇인가 / E.H. 카아 지음; 박종국 옮김(육문사, 1991). [원문DB]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82.5%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저작'을 형성하고 있다. 복수의 구현형을 갖는 저작은 16.9%이며, 이 가운데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에 해당하는 것은 2.7%,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

저작'은 14.2%였다.

또한 주제별로 이러한 저작의 유형분포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과학(300)과 문학(800)은 다수의 구현형을 갖는 대규모 복잡저작이 많은 반면, 총류(000)와 종교(200), 어학(700) 등이 상대적으로 단일저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1저작당 표현형은 평균 1.22개, 1저작당 구현형은 평균 1.45개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학의 경우 1저작당 표현형과 구현형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 구축의 결과로 구현형에 해당하는 복제(128권)는 일반도서관에는 그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를 일반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제 가운데 원문DB에 해당하는 120여권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복잡저작의 비율도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3.3 FRBR 모형의 확대 적용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유형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BR 모형의 저작유형에서 저작개념을 분석해 보면 후속, 속편, 부록, 보유, 개작, 변형, 모방 등의 저작은 원작과 서지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들 저작은 표현형, 구현형으로 취급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저작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작을 해설하거나 서평, 비평, 논평 등을 한 자료도 서지적으로 분명히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작개념에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원작의 표현형과 구현형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해보면 원하는 특정 자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찾는 경우도 많다. 특히 원작에 대한 해설이나 비평서, 학술논문 등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당연히 필요로 할 것이다.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면 관련저작을 집중시키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기존의 목록레코드나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체계는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료유형별로(대체로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기사 등이 따로 구축되어 있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검색해야 한다.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검색을 하더라도 아래의 예시와 같은 [저작]집단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서 레코드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관련 저작을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KERIS의 종합목록에서 '학술지논문검색' 항목에서 '감자'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검색을 해보면 김동인의 '감자'보다는 농작물 '감자'에 대한 논문이 훨씬 많이 검색되어진다. 어떤 기법을 사용하던 동일 범주의 [저작]집단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FRBR 모형은 이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대한 연결장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MARC 형식을 사용하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던 보다 나은 새로운 연결장치의 개발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시 6은 복제와 각색 등이 함께 나타나는 복잡저작이며, 비평서를 표현형에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김동인의 '감자'는 비평서를

제외하면 2개의 표현형과 66개의 구현형이 존재한다. 2개의 표현형은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처음 발표된 원작과 1989년 이것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각색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구현형은 원작을 단독 책자형태로 발간된 13개, 다른 작품과 합집형태 즉, 전체/부분의 형태로 발간된 것이 52개, 비디오녹화자료로 제작된 1개 등 66개이다. 그런데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관련저작으로 볼 수 있는 비평서를 포함하면 15개의 표현형과 이것을 책자와 PDF 파일 등으로 구현한 25개의 구현형을 추가하여 모두 17개의 표현형과 90개의 구현형이 존재한다. 여기서 비평서는 표제에 '감자'라는 용어가

직접 나타나고 있는 저작만 포함했지만 관련 자료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예시 7은 개정과 복제가 함께 나타나는 복잡저작이며, 비평서를 표현형에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목록규칙'은 초안, 초판, 4번의 개정판을 포함하면 6개의 표현형이 존재하며, 여기에 대한 구현형은 모두 10개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평서(제목에 '한국목록규칙'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최근의 논문을 KERIS 종합목록에서 검색함)를 표현형으로 간주하면 5개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구현형은 10개가 존재한다.

• 예시 6: 복잡저작(복제, 각색, 비평서 포함)

[저작] 김동인의 '감자'

[표현형1] 원작(1925년 1월 '조선문단'에 발표)

[구현형1] (短篇小說集)감자 / 金東仁 著(漢城圖書, 1935). [책자형: 단행본]

[구현형2] 감자 / 김동인 저(동서문화사, 1977). [책자형: 단행본]

[구현형3] 감자 / 金東仁 著(文公社, 1982). [책자형: 단행본]

[구현형4] 감자: 狂飈소나타: 外 21篇 / 金東仁 著(文元閣, 1974). [책자형: 합집]

[구현형5] 배따라기: 감자 외 / 김동인 지음(혜원출판사, 1998). [책자형: 합집]

[구현형6] 배따라기: 감자 외 / 김동인 지음(바로북닷컴, 2002). [전자자료: 합집]

...

[구현형64] 배따라기 外: 김동인 단편선 / 김동인 지음(오늘의 책, 2006). [책자형: 합집]

[구현형65] 김동인 단편전집. 1-2 / 김동인 지음(가람기획, 2006). [책자형: 합집]

[표현형2] 드라마 각색

[구현형66] TV 문학관. 2. 감자 / KBS 제작(한국방송사업단, 1989). [비디오녹화자료]

[표현형3] 박홍식의 비평

[구현형67]'감자'의 상징성 / 박홍식, 又石語文, Vol.2(1985), pp.87-101. [책자형: 논문]

[구현형68]'감자'의 상징성 / 박홍식, 又石語文, Vol.2(1985), pp.87-101. [PDF 파일: 논문]

...

[표현형17] 정지혜의 비평

[구현형89]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교육 방법: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 / 정지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책자형: 학위논문]

[구현형90]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교육 방법: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 / 정지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DF 파일: 학위논문]

• 예시 7: 복잡저작(개정, 복제, 비평서 포함)

[저작]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목록규칙'

[표현형1] 초안

[구현형1] 韓國目錄規則(案) /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韓國圖書館協會, 1962). [책자형]

[표현형2] 초판

[구현형2] 韓國目錄規則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圖書館協會, 1964). [책자형]

[구현형3] 韓國目錄規則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圖書館協會, 1964). [원문DB]

[표현형3] 수정판

[구현형4]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圖書館協會, 1966). [책자형]

[표현형4] 제3판

[구현형5] 韓國目錄規則: 記述, 標目올림 指示篇, 第3版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分科委員會 編(韓國圖書館協會, 1983). [책자형]

[구현형6] 韓國目錄規則記述: 標目올림 指示篇, 第3版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分科委員會 編(韓國圖書館協會, 1983). [원문DB]

[표현형5] 제3.1판

[구현형7] 韓國目錄規則, 第3.1版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圖書館協會, 1990). [책자형]

[구현형8] 韓國目錄規則, 第3.1版 / 韓國圖書館協會(韓國圖書館協會, 1990). [원문DB]

[표현형6] 제4판

[구현형9] 韓國目錄規則, 第4版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韓國圖書館協會, 2003). [책자형]

[구현형10] 韓國目錄規則, 第4版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韓國圖書館協會, 2003). [CD-ROM]

[표현형7] 장일세의 수정판 해설

[구현형11] 韓國目錄規則解説 / 張一世 著(韓國圖書館協會, 1981). [책자형]

[구현형12] 韓國目錄規則解説 / 張一世 著(韓國圖書館協會, 1981). [원문DB]

...

[표현형11] 이창수의 비평

[구현형19]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 이창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6, No.3(2005), pp.137-148. [책자형: 논문]

[구현형20]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 이창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6, No.3(2005), pp.137-148. [PDF 파일: 논문]

〈표 5〉 KDC 유별 1저작당 구현형 및 표현형 수(비평서를 포함)

저작유형	KDC 주류											평균(권)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권)	
해설, 평론, 주석	6	8	36	28	7	8	12	13	46	13	177	17.7
1저작당 표현형 수: 〈표 7〉을 합산함	1.20	1.27	1.48	1.60	1.30	1.35	1.36	1.28	1.79	1.37	14.00	1.40
1저작당 구현형 수: 〈표 7〉을 합산함	1.29	1.42	1.72	2.41	1.47	1.54	1.56	1.44	3.27	1.59	17.71	1.77

이와 같이 이용자가 실제 원하는 자료는 바로 이러한 비평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예시 6에서

[저작] 김동인의 '감자'는 [표현형3] 이하, 예시 7에서 [저작]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목록규칙'은 [표현형7] 이하의 내용이 검색

될 수 있도록 레코드가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비평서들도 동일한 저작개념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레코드에 모을 수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표 5〉는 FRBR 모형의 저작개념에서 별개의 저작으로 다루고 있는 비평서 즉, 원작에 대한 해설이나 평론, 주석, 학술논문 등을 표현형 수준으로 간주하여, 예시 6과 예시 7과 같이 하나하나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표본은 앞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비평서에 대한 저작유형은 평균 17.7권이었다. 1저작당 표현형과 구현형은 비평서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1.22권과 1.45권에서 1.40권과 1.77권으로 늘어났다. 이들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DB뿐만 아니라 KERIS의 목록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3.4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의 유용성 분석

앞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FRBR 모형은 개체 관계모형이므로 결국에는 최종 이용자에게 관련자료에 대해 망라적이면서 정확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FRBR 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서지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용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도 한 두 번의 검색 키워드로 접근이 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검색키를 조작하여 접근되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지적으로 관련자료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검색하더라도 다시 저작유형별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면 FRBR 모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FRBR 모형은 관련 자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관계형 모형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지현(2003)은 목록의 포괄성, 상세성, 완전성, 정확성의 4가지 측면에서 목록 이용자와의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도서관 목록레코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유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FRBR 모형의 적용에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과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FRBR 모형을 적용하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시스템이나 FRBR 모형의 적용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은 주로 입력오류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내용의 부정확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FRBR 모형을 적용하면 가능한 부분은 목록의 포괄성 부분에서 레코드간의 서지적 관계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인터넷서점이나 전문 DB 등에서 리뷰나 서평, 목차 등과 같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반 도서관 목록과 달리 식별도구로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FRBR 모형이 기존의 도서관목록에 적용되면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숙(2004)은 FRBR 모형이 원작에서 파생된 모든 관련저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M-FRBR 모형을 제안한 후, 이를 바탕으로 FRBR 모형에서 동일 범주의

저작개념에서 빠져있지만 해제나 비평을 모두 저작의 표현형으로 간주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는 이 시스템에서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관련저작의 집중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FRBR 모형은 기존의 도서관목록에 적용되면 훨씬 유용하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더 효과적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있어 FRBR 모형을 적용할 경우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은 단순저작과 복잡저작을 합산한 16.9%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절에서 조사 내용을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82.5%가 1개의 구현형밖에 갖지 않는 '단일 저작'을 형성하고 있다. 복수의 구현형을 갖는 저작은 16.9%이며, 이 가운데 복수의 구현형을 갖고 있지만 표현형이 1개밖에 없는 '단순저작'에 해당하는 것은 2.7%, 복수의 표현형을 갖는 '복잡저작'은 14.2%였다. FRBR 모형을 적용할 경우 유용성이 있는 저작은 단순저작과 복잡저작을 합산한 16.9%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OCLC의 22%(단순저작 16%, 복잡저작 6%)와 게이오대학도서관의 18.4%(단순저작 4.9%, 복잡저작 13.5%)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구현형에 해당하는 '복제'가 <표 6>에서 12.8%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들 도서관의 조사방

법이나 표본, 자료규모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 4>에서 비평서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1저작당 표현형은 1.22개, 구현형은 1.45개로 나타났지만, <표 5>에서와 같이 비평서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1저작당 표현형은 1.40개, 구현형은 1.77개로 나타났다. 이는 FRBR 모형을 확대 적용하여 비평서를 포함하는 것이 관련저작의 포괄성 측면에서 훨씬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평, 해설, 해제 등의 저작은 FRBR 모형에서 동일한 범주의 저작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하지 않으면 이용자 편의성의 측면에서 유용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문학류가운데 고전작품의 경우 비평이나 해설, 해제 등이 다른 주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이나 규칙 등과 관련된 저작의 경우 해설(비평서)이나 개정서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주제별로는 타 주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류와 사회과학류의 단순저작 및 복잡저작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평서를 포함하였을 경우에 문학류의 1저작당 표현형이 1.79개, 구현형이 3.27개로 가장 높았다. 이는 그만큼 복잡저작의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FRBR 모형의 적용에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문학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거나 변형, 개작, 모방 등의 작품이 실제 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학류가운데 고전작품의 경우, 변형이나 개작, 모방 등의 작

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KERIS 등의 종합목록을 동시에 조사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FRBR 모형에 의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저작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제별, 자료 유형별로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한국어 서지레코드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 표현형과 구현형을 갖는 저작은 한국어 서지레코드에 16.9%가량 존재하고 있으며, 문학류와 사회과학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인 예상대로 서지적 관계가 복잡할수록 유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저작에 번역, 개정, 개작, 복제, 해설 등과 같은 다양한 저작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저작은 일부 문학류의 고전작품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FRBR 모형의 저작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할 경우 유용성이 높다. 원작에 대한 비평서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며, 단행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자료로,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매체로 확대할수록 유용성이 높게 나타난다.

결국 FRBR 모형이 갖는 커다란 이점 가운데 하나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라는 준거를 사용한 서지정보의 계층적 구조화라고 한다면, FRBR 모형이 유용하다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복수의 표현형과 구현형을 갖는 저작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저작은 특정 주제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에 우선적으로 FRBR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목록의 유용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저작의 원작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원작에 관련된 모든 저작이 검색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관련 연구저작(학위논문은 물론 저널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논문까지 포함)이 하나의 저작개념으로 조직되어 목록레코드에 구조화 될 수 있다면 목록의 유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소형. 2006. 『영화정보를 위한 FRBR 모형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현. 2004.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15-235.
- 김정현. 2007. 서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도서관의 저작유형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83-200.

- 김현희. 2007. FRBR 모형 기반 서지검색시스템의 검색 효율성 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23-246.
- 김현희, 유영준, 박서은. 2007. FRBR 모형의 KORMARC 데이터베이스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음악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85-202.
- 노지현. 200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노지현. 2007. 한국의 도서관 환경에서 FRBR 모델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23-244.
- 서은경. 2006. FRBR 모형에 기반한 서지정보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317-339.
- 오지영. 2005. 『목록기능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성숙. 2004. 『FRBR 모형의 수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성숙. 2006. FRBR 모형의 적용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05-331.
- 이유정. 2007. FRBR 실행을 위한 MARC 레코드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9-314.
- 조재인. 2004. FRBR 알고리즘 분석 및 KORMARC 데이터베이스 적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9): 5-21.
- 조재인. 2005. 표현형 계층을 중심으로 한 FRBR 모형분석 및 목록 체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21-239.
- 橋結秋子. 2005. 日本語書誌レコードにおけるFRBRモデルの有用性: 著作パターンの分析, 『日本圖書館情報學會 三田圖書館情報學會 合同研究大會發表要綱』, 2005: 153-156.
- Bennett, Rick, Brian F. Lavoie, and Edward T. O'Neill. 2003. "The Concept of a Work in WorldCat: An Application of FRBR."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27(1): 45-59.
- Boeuf, Patrick Le. 2001. "FRBR and Further,"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2(4): 15-47.
- Cho, J. 2006.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FRBR) to the Online Public Access Catalog(OPAC) in Korean Libraries,"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30(3/4): 202-213.
- Hickey, Thomas B. and Edward T. O'Neill. 2005. "FRBRizing OCLC's WorldCa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3/4): 239-251.
- IFLA. 2003.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Draft Approved by the IFLA Meeting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1st Frankfurt, Germany.* [cited 2007. 11. 5]. <<http://www.ddb.de/news/pdf/state>

- ment_draft.pdf).
- IFLA Cataloguing Section. FRBR Review Group. 2007 *FRBR Bibliography*, 2007. [cited 2007. 11. 5].
<http://www.ifla.org/VII/s13/wgfrbr/FRBR_bibliography.pdf>.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Saur.
- O'Neill, Edward T. 2002. "FRBR: Application of the Entity-relationship Model to Humphry Clinker."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6(4): 1-35.
- Tillett, Barbara B. 2005. "FRBR and Cataloging for the Futur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3/4): 197-205.